

† 찬미예수님

초기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병자들의 치유와 같은 표징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징을 본 것만으로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표징을 보고 그저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내적인 회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1일 부활 제6주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신부 이야기

지난 주에 북미사제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오uckland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날씨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외 여건은 글썽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와 동감하죠? 날씨는 정말 괜찮은데 삶의 조건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높은 물가와 월세, 교통체증, 경쟁, 불안한 치안 등등.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업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활동이 작아보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고 든든한 토대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이 변화는 더욱 커질 것이고 모든 신자들이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주역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뜨락과 하모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일치와 연대가 더욱 견고해지고,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주간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2017년도 5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성모의 밤 (5/13)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시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의 신심을 본받기위한 성모의 밤 행사가 토요일 (5/13) 저녁 8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성모의 밤은 트라이밸리 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하모니에서 성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담아 꽃 봉헌을 했습니다. 꽃 준비에 수고해주신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날 꽃 달아드리기 봉사 (5/14)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모니/뜨락님들이 성당의 어머니들께 꽃을 달아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해주신 류은정 골롬반, 안영은 마르타, 전진영 베로니카 그리고 뜨락회 최정희 라파엘라, 강소영 아델라, 이은진 마크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회 봉사를 도와주신 하상회 김경선 라파엘라 자매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나눔 봉사 (5/14)

수고해주신 장 익 가밀로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외미사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5/14)

미사 끝나고 친교실에서 홍보와 후원금 접수 봉사를 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전진영 베로니카, 안해준 야고보, 차아름 루시아, 권창모 미카엘 그리고 뜨락회 김강훈 그레고리오, 박수현 프란시스코, 서주현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야외미사 걷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우리 공동체 청년회 하모니와 뜨락회를 위한 기금마련 걷기행사가 6월 4일 주일 야외미사 전(오전 9:30-10:30)에 있습니다. 본 행사는 청년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에서 특별히 마련한 주신 감사하고도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 청년회의 활성화와 영적 성장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우리 각자가 행사 준비 및 당일 봉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두번의 주일 (5.21, 5.28) 친교실에서의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봉사하실 분들은 회장단께 연락 주세요.

또한, 지난 몇년동안 기금마련 행사를 맡아오신 한국학교 교감 정 가브리엘라 자매님의 이메일을 (아래) 하모니와 나눕니다. 어르신들의 정성스런 후원금을 감사히 받아 뜻깊은 곳에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함께 되시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찬미 예수님

기금마련 홍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금마련 홍보 뿐만이 아니라 청년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비전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년째 기금마련 테이블 앞에 섭니다.

어르신들의 깊고 깊은 지갑속 싹짓돈을 후원금으로 내주시는 모습들을 매년 뵙니다.

제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아려오는 느낌.

그 느낌을 간직하고 후원금 사용할때마다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앞으로 남은 4주, 한 번쯤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걸 주님께 의탁하며...

한국학교 정 가브리엘라 드림”

주보 나눔 봉사자 (5/21 주일)

최보나 가브리엘라 그리고 금채은 소피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 돌아가면서 주보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주일을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 주세요.

하모니/뜨락 청년회 야유회 및 하모니 입회 환영식 (5/20 토)

하모니와 뜨락 청년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조화를 위한 분기별 공동행사가 5/20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뜨락회에서 하모니로 입회하는 올해 서른이 되는 회원들의 환영식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친목도모를 위한 바베큐 식사와 오락으로 준비됩니다.

화창한 토요일 낮,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위치/약도는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오후 12시

장소: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94619

<http://www.ebparks.org/parks/roberts>

야외미사 (6/4 일)

우리 공동체 야외미사가 6월 4일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님들과 새로운 님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7년 6월 4일(일), 오전 11시

장소: Joaquin Miller Park, 3450 Joaquin Miller Road Oakland, CA, 94611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을 함께할 님들을 모집합니다. 5/2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하모니 이름표

이름표 앞은 한글로, 뒤는 영어미사를 위해 영어로 적을 예정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영어이름 스펠링을 5/21일까지 안해준 야고보 형제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28일 영어미사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부활시기(4/16-6/4)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 (4/16)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 됩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